

작년 출산율 '0.78명'...OECD 1명 미만 유일

통계청, 2022년도 출생·사망 통계 발표 작년 출생아수 4.4% 줄어든 24.9만명 2012년 48만명서 10년새 절반 수준 '뚝'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 나며 처음으로 25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0.8명(0.78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명(4.9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인구재앙을 알리는 전례 없는 수치들을 양산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결혼도 줄고, 엄마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더 늦어지면서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7년 연속 출생아 수가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2015년(0.7%)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년 사이 0.03명이 줄어든 0.78명이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수 조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모두(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을 넘겼지만 두 자릿

수 감소율을 보여 1명을 지켜내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 광역 대도시 출산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도 1명(1.24명)은 훌쩍 넘는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출산한 엄마의 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OECD 평균인 29.3세보다 4살 넘게 출산이 늦다는 실명이 가능하다.

갈수록 아이를 늦게 낳게 되면서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첫째아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000명 늘어난 반면, 둘째아(1만5000명)와 셋째아

(4000명)는 모두 줄었다.

엄마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44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20대 후반(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6100명 줄었고, 30대 후반(35~39세) 산모 출생아 수도 3600명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35세 이상은 고령 산모로 집계한다. 이를 기준으로 고령 산모 비중이 35.7%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이 비중이 18.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나 증가할 셈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출산 연령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은 더 줄어 저출산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영일 과장은 "혼인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출생아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장래인구추계에서 2023년 합계 출산율을 0.73명으로 추계 전망했는데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경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6일, 5년 이상 군복무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정기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어선사고 예방 유관기관 안전점검 간담회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1일 지자체(완도 해남 장흥), 수협중앙회, 한국교통신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김동취재본부



담양소방, 전통시장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담양군 창평시장, 곡성군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순천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2023년 119생활안전순찰대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좀 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소방, 산전마을 방문 독거노인 등 동절기 대민 지원 서비스

여수소방서(이달승) 119생활안전순찰대는 화양면 산전마을 일대를 방문하여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및 화기시설 소방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어린이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개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전남소방본부가 주최한 겨울철 어린이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에서 '마동초등학교'가 학교급 단체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학폭 가해자 찾아가 소리친 엄마 '유죄'...여론은 싸늘

아동학대 벌금...학원 찾아가 "내 딸에 말도 걸지 마라"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성인이 아닌 가해 학생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인데, 현행 제도가 피해자들을 적시에 구호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맞서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정비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임효량 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중학생 딸의 같은 반 학생 B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고 소리를 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양의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차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

다는 것이다.

강대규 변호사는 "형법 23조의 '자구행위' 요건은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예컨대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는 손님을 식당 주인이 잡는 경우"라며 "이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구행위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A씨의 경우는 성인인 학부모가 가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만약 대등한 성인에게 소리만 질렀다면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아동인 만큼 아동학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 판단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판결이 과한 것 같다"는 반응부터 "밥이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 "내 애를 괴롭히면 당연히 눈이 돌아가는데 왜 유죄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정해진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호 더불어민주당

다는 것이다.

강대규 변호사는 "형법 23조의 '자구행위' 요건은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예컨대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는 손님을 식당 주인이 잡는 경우"라며 "이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구행위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A씨의 경우는 성인인 학부모가 가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만약 대등한 성인에게 소리만 질렀다면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아동인 만큼 아동학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 판단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판결이 과한 것 같다"는 반응부터 "밥이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 "내 애를 괴롭히면 당연히 눈이 돌아가는데 왜 유죄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정해진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학폭위 심의 건수 1만63건 중 29.9%(3004건)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열렸다. 특히 서울은 전체 1204건 중 70.9%(854건)이 제 때 열리지 못했다.

학폭위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21일 이내, 늦어도 28일(4주) 안에는 열려야 한다.

학폭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일부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위터에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심부름센터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 분)이 자신을 괴롭힌 주모자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돼 직접 복수를 준비해가는 내용을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이모(44)씨는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선 전체 학폭위 소집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 조치가 좀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학교당국에 대한 불신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환기자



성산일출봉과 노란 유채꽃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2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유채꽃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멸종위기종 '담비'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담비가 광주 도심 숲에서 발견됐다.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김선희 설립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학교 주변 숲에서 담비 두 마리를 목격했다.

당시 한 마리는 학교 뒤편 울타리에 앉아있었다. 이어 또 다른 담비가 주변 나뭇가지를 오갔다.

담비들은 청설모를 쫓는 듯 보였고, 학교 근처 숲에 2~3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주무관은 "학교 주변이 숲으로 둘러 쌓여있다"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청설모 한 마리가 보였고, 뒤이어 담비 두 마리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을 도심 한복판에서 처음 목격하니 신기하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